

# 유소년 클럽 키워야 프로농구가 산다

프로농구 저변확대 가장 좋은 방법 엘리트 전환 선수 우선지명 제도도 장기적으로 프로팀 선수 수급 도움 많은 초중등 지도자들도 현장 찾아

2019 KBL 유소년클럽 농구대회가 18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내 선승관에서 각 부문별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프로 10개 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농구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한농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지 않은 인원만이 참가할 수 있다. 비 엘리트지만 평소 클럽에서 다져온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대회인 만큼 선수들과 학부모, 구단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2007년부터 유소년 클럽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KBL은 점차 대회를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 중등부까지 출전기회를 주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는 서울 삼성, 고학년부는 서울 SK, 중등부는 삼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 ●엘리트 대회 못지않은 관심과 선수 기량

이번 대회는 농구를 취미로 하는 프로구단 산하 유소년클럽에서 활동하는 학생들로 팀이 꾸려졌다.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



2019 KBL 유소년클럽 농구대회가 18일 막을 내렸다. 프로 10개 구단이 운영하는 유소년농구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엘리트 선수를 못지않은 기량으로 눈길을 끌었다. 꿈을 향한 도전에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18일 경북 문경 국군체육부대 선승관에서 열린 초등 고학년부 결승전 도중 울산 현대모비스 김건하(왼쪽)가 서울 SK 선수의 수비를 뚫고 있다. 사진제공 | KBL

고 있지만 엘리트 선수 못지않은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각 팀마다 최소 1~2명씩은 있었다. 이들 중 몇몇은 엘리트로 전환해 선수생활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보니 수준급 경기 내용을 선보이는 팀들이 적지 않았다. 초등학교 고학년부 결승에서 격돌한 울산 현대모비스와 SK의 경기는 시종일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경기의 질도 매우 높아 현장을 찾은 프로농구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얻었다. SK 센터 다니엘, 현대모비스 가드 김건하 등은 엘리트 전환 계획은 없지만 당장 엘리트 팀에 뛰어들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경기력을 과시했다.

### ●KBL이 주목하는 유소년클럽

KBL은 유소년클럽의 육성과 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프로농구 저변 확대에 있어 유소년클럽만큼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부터 KBL은 유소년클럽을 통해 엘리트로 전환하는 선수들을 프로구단들이 우선 지명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기량이 좋은 선수뿐 아니라 신체조건이 좋은 선수를 조기에 발견해 육성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방법이 효과를 거두면 장기적으로는 각 프로팀들은 선수수급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BL은 이들 뿐 아니라 유소년 클럽 선수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팀도 조직했다. 이미 유소년클럽 출신의 9명이 각 프로팀의 우선지명을 받은 뒤 엘리트로 전환해 선수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에도 초중등 농구팀 지도자들이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을 방문, 클럽 선수들의 기량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KBL 이준우 사무차장은 “유소년클럽을 통해서 엘리트 팀들이 선수수급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크게는 이러한 무대를 통해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유소년을 위한 투자는 구단뿐만 아니라 KBL도 꾸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경 |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 폐막

## 전세계 동호인들의 축제 도전과 감동으로 물들다

지구촌 수영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야외무대에서 '다 함께 하나 되어'를 주제로 펼쳐진 대회 폐회식에는 이용섭 대회조직위원장(광주광역시)과 모하메드 디옌 FINA 부로 리에종, 도린 티보스 FINA 마스터스 위원장과 각국 선수단 등 1000여 명이 함께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31일(세계수영선수권 17일간, 세계마스터스수영대회 14일간) 동안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마스터스수영선수권은 2년 뒤 후쿠오카 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20도쿄올림픽을 향해 당찬 도전에 나선 전 세계 특급 수영스타의 대결로 관심을 끈 세계수영선수권과 달리 마스터스대회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겼다. 각국에서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이들이 수영을 매개로 광주에 모여 도전하고 극복하며 아픔을 치유해 나갔다. 장애인들도 스스로를 향해 두지 않고 당당히 도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자부 최고령자(91세)이자 최다종목(11개) 출전자인 테네포 탄초(불가리아)는 “내 삶에는 욕망이 있다. 욕망이 없으면 목표에 이를 수 없고 무의미한 삶이다.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대회에 참여했다”며 끊임없는 도전을 강조했다.

마스터스대회의 성과는 또 있다. 동호인 수영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와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광주대회에 국내에서는 100여개 팀에서 약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경영경기뿐 아니라 아티스틱수영과 오픈워터수영, 다이빙, 수구 등에 두루 참여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도린 FINA 마스터스위원장은 “수영은 남녀노소, 전 연령이 하는 운동이다. 부상 염려도 적고, 유연함을 기를 수 있다. 지구촌 동호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우정을 나누는 것이 마스터스대회 핵심 가치”라고 역설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까지 개최한 광주는 국제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 특히 대회 기간 메인 경기장으로 활용된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최상급 수준을 자랑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제1의 수영 도시를 위해 엘리트 및 지도자 양성, 수영 대중화 및 생존수영 확대 등을 위한 한국수영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엘리트와 마스터스 구분을 두지 않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와 오지 동호인들을 위한 광주수영마스터스대회(이상 가칭) 개최를 검토 중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1년 앞으로 다가온 2020도쿄올림픽...방사능 공포 덮으려는 일본의 꼼수에 세계가 경악

## 후쿠시마 지척에서 '방사능 야구'를 하라고?

선수촌 식재료를 후쿠시마 농산물로 후쿠시마 원전서 고작 67km 떨어진 아즈마 경기장서 한-일 개막전 언급

내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 때는 야구가 정식종목으로 펼쳐진다. 12년만의 '한시적 부활'이다. 개최국 일본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한 결과다. 그러나 2024년 파리올림픽 때는 다시 제외된다. 글로벌 스포츠와는 동떨어진 야구의 현주소이자 치명적 약점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놓고는 날이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여파로 폐쇄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후쿠시마산 농산물

을 선수촌 식재료로 사용하고,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가능성까지 제기됨에 따라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일본정부를 향한 국제적 비난 여론은 들끓고 있다.

하필이면 야구가 그 같은 공포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야구 개막전은 후쿠시마 아즈마 스타디움에서 예정돼 있다.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불과 67km 거리에 있다고 한다. 또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올림픽 출전권 확보를 전제로 한국 일본의 야구 개막전 성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4년 전이다. 메이저리거가 주도하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대해 세계 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은 '프리미어 12'라는 대회를 탄생시켰다. 야구 세계랭킹 12위까지 참가하는 월드컵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성격을 지닌 대회다. 일본이

많은 공을 들인 까닭에 일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대회 일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15 WBC 프리미어12 당시 한국은 삿포로돔에서 일본과 개막전을 치른 뒤 버리나케 조별리그 장소인 대만으로 이동했다. 조별리그 도중에는 경기장이 갑자기 바뀌는 통에 혼란만 '대기모드'로 지내야 했다. 설상가상 준결승 일본전을 앞두고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본의 요구로 경기일이 하루 앞당겨졌다. 결승 진출을 자신한 일본이 준결승 직후 하루 휴식일을 얻기 위해 무리수를 마다하지 않았다.

일본은 56년 만에 다시 자국에서 개최되는 하계올림픽을 통해 안전한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는 전후의 부흥상을 세계만방에 과시했고, 반세기가 흐른 이번에는 방사능

공포에서 자유로운 나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방사능올림픽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리적 의식과 우려에 그들 스스로 입과 귀를 닫고 있는 이유다.

그 전위대로 야구를 내세우고 있다. 자국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야구, 종주국 미국에 필적하는 실력으로 성장했다고 자부하는 야구, 그토록 원했던만큼 아직 올림픽 금메달과는 연이 닿지 않았던 야구를 다른 곳 아닌 후쿠시마에 펼쳐놓기로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4년 전 WBC 프리미어 12를 좌지우지한 일본의 '꼼수'를 기억하기에 더더욱 격정스러운 상황전개다.

그러나 꼼수와 방사능 공포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다. 더욱이 출전국이 적어 보는 눈 또한 적을 수밖에 없는 야구를 놓고 개최국이 횡포를 부리고 있음에도 마땅한 견제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야구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지만, 자국에서 열리는 내년 올림픽을 통해 어쩌면 일본은 야구를 세계와 더 멀리 격리시킬지도 모른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수질오염...오픈워터 수영 올림픽 테스트 취소

2020도쿄올림픽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유치경쟁부터 뇌물 스캔들로 흥역을 치렀던 도쿄올림픽은 지난 주말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17일 일본 주요 매체들은 “패러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집행위원회가 도쿄 오다바바 해양공원에서 올림픽 테스트이벤트를 겸해 열 예정이던 패러트라이애슬론 대회의 오픈워터 수영을 수질오염으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16일 오후 1시 수질검사가 실시됐고, 대장균 수치가 국제트라이애슬론연합(ITU)이 정한 기준치를 두 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라이애슬론은 사이클과 마라톤, 오픈워터 기록을 종합해 순위를 정하는 종목으로 패러트라이애슬론은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경기다. 주최 측은 오픈워터를 취소하고 마라톤과 자전거로만 대회를 소화

하기로 했다.

예상대로 주최 측은 사태를 축소하기 바쁜 모습이다. 14일, 15일 경시는 이상이 없어 예정대로 15~16일 트라이애슬론 예선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번의 경우, 제10호 태풍의 영향과 폭우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오수가 도쿄만에 흘러들었다는 실제 없는 추정 발표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의 진짜 걱정은 오수가 아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방사능 노출 가능성이 높고, 오염수가 방치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된다. 선수단 등 간접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에 일본 정부는 “문제없다”는 뜻을 내비치며 후쿠시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인근 경기장에서 야구 등 일부 종목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정현 기자

### 도쿄올림픽 설명회 북한 돌연 불참 통보

#### 도쿄 부도칸 유도선수권도 불참

북한이 2020도쿄올림픽 설명회에 불참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북한이 20일부터 22일까지 도쿄에서 열리는 2020도쿄올림픽 설명회 겸 선수단장 회의에 불참한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설명회 및 선수단장 회의는 일본 올림픽위원회가 참가예정국가에 대회 준비 상황 및 경기 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다.

당초 북한은 이번 설명회와 선수단장 회의에 원길우 체육상 부상 등 3명을 보낸다는 계획이었으나 돌연 불참의사를

전달했다. 일본은 대북 독자제재를 통해 북한 극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만, 올림픽 관련해서는 북한 대표단의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였다. 북한은 주최 측에 불참의 뜻을 통보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은 25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유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유도선수권대회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전초전 격이다. 북한은 세계선수권대회에 남자2명, 여자6명 등 총 8명의 선수를 출전시킬 예정이었다.

전일본유도연맹 측은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국제유도연맹(IFJ)에도 대회불참의사를 전했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